

1. 들어가는 말

지금 우리는 행복한가?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논하던 벤담(영국: Jeremy Bentham, 1748-1832)의 미라가 200여 년이 지난 이 시대에 살아온다면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거침없이 흐르던 지구촌의 세계화 물결이 누구도 예상 못 했던 감염병의 팬데믹[세계적 대 유행]으로 주춤해 있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행복은 커녕 안전하기는 한가? ‘인문가치의 재발견과 재해석’을 주제로 21세기 뜻밖의 상황에서 마주한 한·중 인문학자들에게, 민족 서사는 어떻게 재발견되고 재해석 될 수 있을까? 게다가 ‘신화 나부랭이’가 이 엄중한 시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소위 강대국들의 패권경쟁이 횡횡하며, 온갖 장벽을 쌓아가는 이 시대에 한·중 민족기원 신화를 주제로 21세기를 1/5 경험한 지금 우리의 인문정신을 되돌아보고자 한다.

2. 인류기원과 민족기원 신화

초사(楚辭) 「천문(天問)」은 이렇게 시작한다.

“曰遂古之初, [하늘에 묻노니, 신이 천지를 만들었다는] 그 아득한 옛날 태초의 일들을
誰傳道之. [그때는 아무도 없었을 텐데 어찌 보고] 누가 전하여 이르는가?
上下未形, [시간과 함께 공간도, 하늘과 땅] 위와 아래 아직 나뉘 없는데
何由考之. [어디 있던 사람이] 무엇으로 그것을 헤아렸을까?”

중국 신화뿐 아니라 세계 대부분 신화가 기원을 설명한다. 자연이 되었든, 사물이 되었든 심지어 인간이 되었든, 혹은 그 인간들이 만드는 역사가 되었든 그것들의 기원을 설명하고 싶어 한다. 그것이 문헌으로 남았든 구전으로 전하든. 그리고 전승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와전과 왜곡과 변형이 생긴다 해도 기본적으로는 기원을 설명하고자 한다. 히브리 민족의 『창세기』를 비롯해 세계의 수많은 민족이 인류의 기원과 자기 민족의 기원을 설명한다. 그런데 굴원(屈原, 약 343-278 B.C.)은 그 많은 신화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과연 누가 직접 보았느냐, 그것을 어떻게 사실이라 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을 던진다. 그리고 그가 알고 있던 신화와 전설에 관한 170여 가지 질문들을 계속해 간다. 그중에는 황토(黃土)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인면사신(人面蛇身)의 여와(女媧), 하(夏)·상(商)·주(周) 왕조의 시조(始祖)로 여겨지는 우(禹)·설(契)·후직(后稷)을 비롯해 동주(東周) 시대 진(秦)·제(齊)·오(吳)와 자신의 초(楚) 나라 역사 관계 고사들까지 망라하고 있다.

한국민족의 기원과 관련해 사회학, 민족학, 역사학 방면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민족을 형성한 ‘부족(tribes)’에 대해 기존의 ‘예(濊)’ 1부족설[이지린 교수 학설], ‘예맥(濊貊)’ 1부족설[이병도 박사 학설], ‘예(濊)’·‘맥(貊)’ 2부족 결합설[김상기 박사 학설]에 이어 ‘한(韓)’·‘맥(貊)’·‘예(濊)’ 3부족 결합설을 제시하는 연구물들도 보인다.¹⁾ 중

국 역사학계에서는 한때 구계강(顧頡剛, 1893-1980)으로 대표되는 ‘의고학과(疑古學派)’의 등장으로 신화의 역사화에 대한 자성이 있기도 했으나, 신중국 성립 이후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하상주단대공정(夏商周斷代工程, 1996-1999)’에 이르기까지 상고사의 복원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²⁾ 인류의 기원을 노래하는 ‘창세기’는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나 전승되고 있다.³⁾ 중국의 반고(盤古)나 여와(女媧) 이야기가 중국의 전통적 문헌에 나타나는 인류기원 신화라 하겠는데 굴원은 「천문」에서 또 이렇게 묻는다.

登立爲帝, [伏羲의 여동생 女媧] 자리에 올라서 帝가 되도록,
孰道^尙之. [어떤 원칙으로 천거하며] 누가 인도해 만들었을까?
女媧有体, [黃土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女媧도 형체를 지녔는데,
孰制^匠之. [人面蛇身이었던] 그녀는 누가 지어냈을까?

신화가 기원을 설명하려는데 반해 「천문」에서는 설명보다는 ‘의문’을 던진다. 『산해경(山海經)』과 함께 중국 신화의 보고(寶庫)로 언급되는 「천문」의 특징이자 매력이기도 하다. 사회학이나 역사학의 지향과 방법이 문학의 그것과는 다를 수 있음도 엿볼 수 있다. 엄밀히 보면 중국의 인류기원 신화나 한국의 인류기원 신화는 오히려 민족의 기원을 설명하는데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다른 나라들의 신화 역시 이런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마치 인류가 시작된 후 홍수로 멸망되었다가 간신히 살아남은 소수가 다시 인류를 퍼뜨리게 되었다는 공통성을 갖는 것처럼 말이다.

3. 한국 민족기원 신화

세계화의 물결과 함께 한국에서 21세기에 들어와 유행하는 용어가 ‘다문화’이다. 다문화가정을 비롯해 다문화 사회 속에 진입한 한국이기에 한국도 더는 단일민족 국가일 수 없으며,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외침에 의한 이방 민족들과의 혼혈로 이전에도 한국인은 단일민족일 수 없다는 논리다. 사회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단일민족이 아니라는 여러 방증이 동원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은 단일민족이라는 의식이 뿌리박혀 있다. 특별히 20세기 초 외세에 의한 침탈과 피식민지 경험들이 이런 생각과 정신을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과 민족과 국가의 분단은 이런 단일민족에 대한 그리움을 심화시켰다. 단군왕검이 나라를 열었다는 개천절을 국경일로 정하여 지키는 남한에서나, 1993년 10월 평양시 강동군에서 단군의 무덤을 발굴했다는 북한에서나 자신들이 단군의 자손이라는 데 크게 저항감이 없을 것이다.⁴⁾ 해석의 차이들은 존재하지만 크게 보아 한 시조신을 섬기는 단일민족이란 유대감이 존재한다. 동일 문자를 사용하며, 방언의 차이는 다소 있어도 동일 언어를 사용해 왔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1) 慎鏞廈, 『한국민족의 기원과 형성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1
2) 李成九, 「중국의 신화와 역사」, 『한국사 시민강좌』 27, 2000.8, 203-224.
3) 최근 한국에도 번역 소개된 중국 소수민족의 하나인 納西族의 창세기는 그 수 많은 창세기 중의 하나이다. 김선자 엮어옮김, 『나시족 창세신화와 돛바東巴문화-納西族 創世記-』, 서울: 민속원, 2019.2
4) 조원진, 「북한의 단군 민족주의에 대한 검토」, 『단군학연구』 40, 2019.6, 183-215.
이재원, 「남한과 북한 문학사에 서술된 단군신화 고찰」, 『단군학연구』 9, 2003.12, 83-114.
정영훈, 「남과 북의 단군 인식과 단군 숭앙」, 『단군학연구』 12, 2005.6, 177-219

역할을 했다. 고조선(古朝鮮)에 이어지는 고구려(高句麗)의 시조(始祖) 동명성왕(東明聖王) 주몽(朱蒙), 백제(百濟)의 시조 비류(沸流)와 온조(溫祚)를 비롯하여 신라(新羅)의 시조 박혁거세(朴赫居世)와 석탈해(昔脫解) 신화 등도 단군신화와 큰 충돌 없이 회자 되고 있다.⁵⁾ 오히려 시야를 넓혀 고조선의 형성과 전개양상이 중국을 넘어 중앙아시아 지역에까지 확대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⁶⁾ 그런데도 해방 이후 70년 넘게 38선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원수로 지칭하며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20세기 또 하나의 신화라고 할 수밖에 없다.

4. 중국 민족기원 신화

1953년 신중국에서 처음 민족식별을 시작할 때 스스로 등록했던 민족 명칭의 수가 400여 개가 넘었다고 한다. 그 후 문혁(文革) 기간의 중단을 겪으면서도 여러 차례 식별 작업을 거쳐 1979년 3월 지닝(基諾)족이 마지막 55번째 소수민족으로 등록되면서 중국의 법정 민족은 한족(漢族)을 포함해 56개의 다민족 국가로 선포되어 지금에 이른다.⁷⁾ 중국은 단일민족의 신화가 존재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진 13억의 인구 대국이다. 그런데 ‘하나의 통일된 다민족 국가[一個統一的多民族國家]이다. 분단되었던 하나의 민족을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민족이 하나로 통일되었다는 것이다. 타이완과 홍콩 문제가 있음에도 대내외적으로 중국은 하나라는 정책을 유지하며 오늘에 이른다. 헌법 서문에서조차 타이완은 중국 영토의 일부라고 천명하며, 헌법 제4조에서는 민족 단결을 해치고 민족 분열을 만드는 어떤 행위도 금지한다고 밝힌 상태이다.⁸⁾

신중국 성립 이전부터 중국은 민족문제가 국가 운영의 큰 숙제였다. 그래서 신해혁명 직후부터 쑨원은 오족공화(五族共和)를 주창하며 중화민국 국기도 다섯 민족을 상징하는 오색기를 사용했다.⁹⁾ 그래서 다민족 국가를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중화민족’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야 했고, 민족기원 신화도 이런 의도에 따라 ‘설명’하기에 이르렀다. 예컨대, 중국의 대표적인 민족기원 신화라고 할 황제(黃帝) 신화도 민족국가라는 ‘상상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황제도 ‘만들어진 전통’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¹⁰⁾ 신중국 성립 이후 민족식별 사업이 완료된 이후부터 중국에서는 신화연구의 불이 붙었다. 일명 ‘신화열(神話熱)’이다.¹¹⁾ 중국 최고의 신화학자로 일컬어지는 위안커의 3부작, 『중국신화전설』(1984), 『중국신화사』(1988), 『중국신화대사전』(1998) 등이 나온 것도 이런 신화열을 반영하기에 충분

5) 박기용, 「한중 건국 시조신화 비교 연구 - 상고시대 신화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43, 2008.8, 97-134.

6) 김채수, 「요하문명과 황하문명과의 관련양상-‘고조선’의 성립과 전개양상을 주축으로-」, 『일본문화연구』 44, 2012.10, 145-171.

7) 林耀華, 『民族學通論』(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1997.12), 193-194쪽.

8) 序文: “台灣是中華人民共和國的神聖領土的一部分。完成統一祖國的大業是包括台灣同胞在內的全中國人民的神聖職責。” / 第四條: “中華人民共和國各民族一律平等。國家保障各少數民族的合法的權利和利益, 維護和發展各民族的平等團結互助和諧關係。禁止對任何民族的歧視和壓迫, 禁止破壞民族團結和製造民族分裂的行爲。”

9) 위로부터 紅黃藍白黑色이 漢·滿·蒙·回·藏族을 상징한다.

10) 李有鎮, 「중국민족주의 담론으로서의 黃帝서사에 대한 계보학적 고찰」, 『중국어문학논집』, 57, 429-455.

11) 鄭在書, 中國 神話의 歷史와 構造 - 盤古神話를 中心으로-, 한국구비문학학회편, 『동아시아 제 민족의 신화』(서울: 박이정, 2001.1), 169-188.

하다.¹²⁾ 엄청난 양의 소수민족 자료를 모아 출판하는 등의 노력도 이 신화열의 결과물이라 할 것이다.¹³⁾ 중국에는 신화전설 자료가 넘쳐나지 않다고 했던 루쉰(魯迅)의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그런데 이러한 신화열에 이어 중국의 교과서에는 변화가 일어났다. 전통적으로 중화민족의 시조는 황하(黃河) 유역을 다스렸다는 황제(黃帝) 현원씨(軒轅氏)였고, 학생들은 스스로가 ‘황제자손(黃帝子孫)’이라고 배웠다. 그런데 황제만으로는 양쯔강(揚子江) 유역 민족의 시조로 알려진 염제(炎帝) 신농씨(神農氏)의 후손들을 아우를 수 없게 되자 이제부터는 ‘염제와 황제의 자손(炎皇子孫)’으로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1997년에 중화삼조당(中華三祖堂)을 조성하고,¹⁴⁾ 2007년 창춘 동계아시안게임에는 백두산의 중국식 명칭인 창바이산(長白山)을 대대로 홍보하며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공언했었다.¹⁵⁾ 그리고 2008년 8월 제29회 베이징올림픽 성화 봉송 시 베이징에서 약 120km 떨어진 이 삼조당에 성화를 보관했다가 개막식에 사용하면서 전 세계에 중화민족은 ‘염제와 황제와 치우의 자손(炎皇蚩之孫)’이라고 홍보했다. 단대공정(斷代工程), 탐원공정(探源工程)에 이어 요하문명론(遼河文明論)과 동북공정(東北工程)의 소식을 연이어 듣는다. 중국의 모든 중화민족은 삼조(三祖) 안에서 대가정을 이루었으니 중국의 주장대로라면 민족의 기원을 찾는 것은 이제 무의미한 일이 되었다. 문화도 삼조(三祖) 문화라고 하면 어떠한 소수민족의 문화라도 중화 문화의 용광로 안에서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북한에서 1990년 중반 이후 단군을 강조하면서 ‘김일성민족’이 탄생하는 정치적 기획과 다를 바 없다고 하겠다.¹⁶⁾

5. 국가의 신화에서 민족의 신화로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민족주의도 국가주의도 늘 한계에 부딪혔고, 그 한계의 돌파는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치달은 경우가 허다하다. 지금도 전 세계는 이런 양상 앞에서 갈등하며 정치적으로는 신냉전 체제를 맞아, 경제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자국 우선주의를 공언하고 있다. 아마 이런 현대사의 질곡에서 가장 고민이 많은 곳이 중국인에게는 중국이요, 한국인에게는 한국일 것이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자신이 터 닦고 살아온 삶의 터전이 각 개인의 본토일 것이고, 이런 ‘본토(locality)’에 충실한 일명 ‘본토주의’가 국가주의

12) 이 가운데 앞 두 책은 이미 국내에도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전인초·김선자 옮김, 『중국신화전설』 (1)(2), 서울: 민음사, 1999. 2002(개정판). 김선자·이유진·홍윤희 옮김, 『중국신화사』 (상)(하),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10.1. 오늘날의 그리스로마신화 유행을 가능케 한 19세기 인물로 미국의 불핀치(Thomas Bulfinch, 1796-1867)가 있었다면, 중국 신화의 유행을 가능케 인물로는 四川 출신의 袁珂(1916.7-2001.7)를 들 수 있을 것이다.

13) 季羨林 名譽主編/ 徐麗華 主編, 『中國少數民族古籍集成』(漢文版) [全100冊], 成都: 四川民族出版社, 2002.11.

14) 河北省 張家口市 涿鹿縣에 위치, 원래 黃帝祠의 기초 위에 국내외 32만 명 중화의 아들딸들이 기금을 모아 1994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1997년 홍콩 반환하는 해에 준공, 1998년 7월 25일 정식 개장한 中國黃帝城文化旅遊區의 중심. 1977년 홍콩 반환 전야에 길림성 3명의 청년이 애국열정을 품고 홍콩의 흙을 가져와 삼조당 동쪽에 뿌리고, 3그루의 소나무[回根松]를 심고 1997cm의 화강암 ‘港土歸根碑’를 세워 중화민족 단결통일의 상징이 되었다는 홍보. 지금도 청소년과 해외동포들도 제문 낭독을 들으며 참배하는 명소가 되어 있다.

15) 8자를 선호하는 중국인들이지만, 2022년에 열릴 예정이다. 2018년은 한국의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됨.

16) 이정빈, 「북한의 고조선 교육과 ‘김일성민족’의 단군 - 1993년 이후 고등중학교 『조선력사』를 중심으로-」, 『韓國史學史學報』 32, 2015.12, 75-97.

와 민족주의의 폐해를 뛰어넘을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¹⁷⁾ 다음과 같은 김선자(2019)의 제언도 귀담아들어둘 만하다.

“국가나 민족의 위대함과 오래된 역사를 선양하는 도구로 신화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소수민족들의 신화가 담고 있는 ‘공유’의 가치를 찾아내어 그것을 하나의 지식 담론으로 만들어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¹⁸⁾

역사뿐 아니라 정치와 지나치게 밀착된 담론은 결국 담론의 전쟁에서 실제적 전쟁으로 불뚝이 튀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한중 민족기원 신화가 논의되어 온 일련의 과정들을 살피면, 마치 무슨 역사 전쟁이라도 치러야 하는 비장함을 품게 만든다. 정치나 역사 논쟁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진제를 설정해 놓고 정오(正誤)와 시비(是非)를 판단하려는 토론이 중국에는 과국을 맞는다. 자국중심주의나 자민족중심주의 모두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지금 인류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감염병 펜데믹 사태는 인문학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진지하게 재고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전쟁이라면 상대를 제압할 ‘힘’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상대가 살아야 나도 살 수 있는 사태를 경험하고 있다. 상생의 인문학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상대의 소리에 서로 경청하며 배려해야만 인류의 ‘미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초국경 사회, 정보화,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환경·생태·소수·공존을 생각하는 자세야말로 침예한 대립과 반목에 빠져 있는 한·중 민족기원 신화연구의 현주소에서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이다.

민족기원 신화의 서사는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줄 수 있는 인류의 보고이다. 신화를 정치적 국가주의에 따라 해석하려고 하면 신화는 그 다양성을 잃고 교조적인 종교 경전으로 전락한다. 서두에 ‘신화 나부랭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자불어괴력난신[子不語怪力亂神]’의 전통적인 유교적 시각에서 보면 ‘신화’는 필시 ‘나부랭이’라는 꼬리표를 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신화(myth)’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고상하고 엄격한 것이 아닌데, 이런 신화에조차 날카로운 칼을 들이댄다면 신화의 맛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야기는 이야기 자체의 재미와 흥미를 제동할 때 생명력을 지닐 수 있다.

“천시불여지리, 지리불여인화(天時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라 했다. 전쟁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인화라고 말하던 맹자(孟子)인데, 천시(天時)와 지리(地利)에 대한 우위만을 점하기 위해 이웃과 불화한다면 두 나라 민족기원 신화는 영원히 화해하지 못할 것이다. 중국은 수많은 민족을 하나로 통일하려는 의도로 중국 민족기원 신화를 해석하려고 해왔다.¹⁹⁾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실적으로 한국은 한 민족이 나뉜 채 나라도 둘이 되어 있다. 공생(共生) 혹은 상생(相生)할 수 있는 양국의 신화연구와 이해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17) 유명하, 『중국 민족주의와 홍콩 분토주의』 (개정판), (부산: 산지니, 2020.4) 173-196쪽 참조.

18) 김선자, 「담론의 전쟁에서 ‘공유(common)’의 담론으로 - 동아시아 신화학 연구 방향에 대한 제언」, 『한국중어중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9.11, 28-38.

19) 공봉진, 「‘중국민족주의’가 한국에 미친 영향」, 『국제지역학논총』 5(2), 2012.12, 67-92. “중화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한 중국의 역사와 민족 및 문화에 대한 인식은 중국인들에게 자발적 애국주의를 갖게 하였고, 중화민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갖게 하였다. 중국은 이 두 가지를 통해 ‘강한 중국 민족주의’를 갖게 하면서 단일민족이라는 인식을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중국은 애국주의교육과 애국주의시범기지를 통해 중국민족주의를 고양시키고 있다. 정신적으로는 중화민족주의 행동으로는 애국주의를 드러내도록 하고 있다.”

6. 민족의 신화에서 인간의 신화로

민족기원 신화와 짝을 이루며 등장하는 홍수와 치수 설화가 앞서 감상한 「천문」에도 제법 길게 나온다. 앞부분의 약 1/4 정도만 들어보자.

不任汨鴻, [堯임금 때의 鯀] 홍수 다스릴 적임자도 아닌데
師何以尙之. [黃帝의 손자로 고집 센] 그를 우리가 왜 추천했나?
僉曰何憂, [堯임금께] 모두들 말했지: “무슨 걱정이십니까?”
何不課而行之. [결국은 실패했으니] 어찌 가늠도 않고 그를 등용했나? (陽)

鷓鴣曳銜, [근심 쌓인 鯀에게] 술개와 거북이 방책을 일러줬지.
鯀何听焉. [息壤을 흠치라고] 鯀은 어찌 그 말 들었나?
順欲成功, [黃帝 것 흠쳐내어, 사람들의] 바람 따라 공 이뤘지.
帝何刑焉. [天神들의 뜻인 홍수라지만] 黃帝는 어찌 그를 벌 주었나? (耕)

永遏在羽山, [祝融시켜 목 베어] 오래도록 羽山에 버려졌는데,
夫何三年不施. [神人이어서였나] 어찌 3년 동안 썩지 않았나?
伯禹腹鯀, [河伯로 봉해졌던] 伯禹, 鯀의 배속에 있다가,
夫何以變化. [보검으로 가르자] 대체 어찌 변화하게 되었나? (歌)

이 상상의 세계를 오늘날의 애니메이션이나 공상과학영화로 제작한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한중합작 인류기원 신화나 홍수신화를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일명 한족(漢族) 신화 뿐만 아니라 무궁무진한 소수민족 신화들이 우리의 손을 기다린다. 모티브와 주제를 취해 시나리오 작업을 거쳐 뮤지컬이나 기타 예술 분야로 변환한다면 그리스로마신화에 못지않은 재미가 있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백성들을 교화나 세뇌하기보다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한중의 신화를 활용할 수 있다면 좋겠다. 한중 문학과 예술인들이 생각을 모아 멋진 고주몽(高朱蒙)의 영화를 만들어 교류할 수 있으면 또 얼마나 좋을까? 배경 음악도 근사한 것으로 삽입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신화로 싸우지 말고 신화로 함께 즐길 수 있는 한중 인문학 잔치가 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좋겠다. 비단 한국과 중국의 국민들뿐 아니라 지구촌 모든 사람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작품이 나올 수 있다면, 이데올로기적 민족의 신화에서 벗어나 참다운 인간의 신화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7. 나오는 말

한국인이라면 전통적으로 대부분 단군의 자손이라고 자처한다. 북한은 더더욱 그렇다. 현 대사의 질곡으로 대한민국(大韓國)은 남북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국호로 UN에 동시 가입하여 2개의 나라가 되어 있다. 중국 인구의 1/20에도 못 미치는 민족임에도 1민족 2국가의 현실이다. 이런 현실적 뿌리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반면 13억이 넘는 인구의 중국은 1국의 기치 아래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공고히 하고 있다. 중국의 민족학 연구가 120여 년의 학문적 축적이 있지만, 한국의 민족학 연구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양국의 민족

학 연구를 개괄해 보고도 싶었다. 통합 지향적일 수밖에 없는 중국 민족학과 배타 지향적으로 흘러야 했던 한국 근대사의 질곡이 한국민족학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 면도 함께 살펴보고 싶었다. 한민족, 조선 민족, 고려인, 조선족, 배달의 민족 등 다양하게 불리는 단군의 후손들이 하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중화민족’에게서 배우며, 그 ‘중화민족’과 지금 그리고 앞으로 동북아시아에서 공존하는 현실적 방법도 함께 탐색하고 싶었다. 이런 원망(願望)을 여전히 가슴에 품고 이웃 나라 이웃 민족 상생의 신화학 혹은 민족학을 나는 꿈꾼다.